

기혼 여성들의 첫 출산시기와 간격 조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

송 유 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Analysis of How Married Women Adjust Timing of First Birth and Birth Interval :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ng, Yoo Jean
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birth timing and the birth interval for married women, focusing on their employment status. Relying on 2005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three different groups were selected: those who have no child until five years after marriage; those who gave birth for the first child within three years; those who gave birth for the second child within three years. Results show that married women who have temporary jobs tend to have longer period of having no child than housewives. In contrast, among those who have the second child within three years, married women who have temporary jobs tend to have shorter birth interval for their second child than housewives. Women in their 20s are more likely to have shorter period of time to have the first child and shorter interval for the second child than those in their 30s. Job security for married women, maternity leave for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family-friendly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fertility level by shortening the timing of having the first child and the birth interval.

Key words: women's employment, timing of first birth, birth interval, fertility

I. 서론

한국사회의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

은 이미 주지된 바 있다. 유엔인구기금에서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조사대상 15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08). 이러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2008 신입교원과제 지원비를 받아서 수행되었음.

접수일: 2009년 11월 5일 채택일: 2009년 12월 10일

Corresponding Author: Song, Yoo Jean Tel: 82-51-200-8629

e-mail: yjsong28@dau.ac.kr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치관 변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사교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김두섭 2005). 더불어 인구학적 시각에서는 결혼 연령의 증가가 출산력 저하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된다. 결혼연령의 증가는 여성의 가임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이다(김두섭 2005; 은기수 2001; 전광희 1997).

여성의 가임기간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물학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면, 결혼연령의 증가 못지않게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첫 출산시기)과 첫째 자녀 출산 이후의 출산간격(터울) 역시 중요하다. 첫 출산시기가 늦어지거나 출산간격이 길어질수록 전체 출산수준이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출산시기와 출산간격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여성의 출산경력(fertility history)을 축적한 시계열적 자료가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산시기와 간격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적정한 수의 자녀를 낳는 것이 규범적으로 여겨져 왔던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취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출산과 자녀양육이 안정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출산시기와 간격을 조절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와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언제 자녀를 낳을 것인가’와 ‘자녀를 한 명 이상 낳는다면 터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물론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박수미 2002; 황정미 2005). 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곡선의 형태가 완만해짐을 볼 때 취업과 출산을 병행하기 위하여 출산시기와 간격을 조절하는 전략을 활용

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어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취업상태를 조절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시기와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논의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fertility differential)은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 주제는 경제학적 관점에 뿌리를 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근거하며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 직업 혹은 여성의 취업관련 요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주목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정리한 김두섭(2007)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출산력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녀를 갖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출산을 결정하게 되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역시 출산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직업과 출산수준에 대한 논의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취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으나 출산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출산수준에 주목하였을 뿐 출산시기와 간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인구학적인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관점 못지않게 미시적인 수준에서 차별출산력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학문적인 목적 뿐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주요 정책대상 집단(target group)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출산시기와 간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출

산시기와 간격의 조절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임 기간과 전반적인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출산시기와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시기와 간격 조절, 그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른 출산시기와 간격조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출산의 양(quantum)과 속도(tempo)-중 양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함은 이미 강조된 바 있다(은기수 2001). 은기수(2001)는 전국 규모의 조사를 활용하여 결혼코호트별 첫 출산시기를 비교한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째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밝혀냈다. 즉 첫 출산시기의 연기(속도)가 출산수준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전광희(2006)는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은기수의 연구(2001)는 결혼 코호트에 따른 출산행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전광희의 연구(2006)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전반적인 출산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시도함으로써 변화의 경향성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였다.

이성용(2006)의 연구 역시 경제위기가 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거시적인 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은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의 출산형태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유형과 짧은 기간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빨리 낳으려는 유형으로 이분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시기와 간격,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출생아 수는 개인과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출산행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면, 김두섭(2007)은 거시적인 수준의 논의와 미시적인 수준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는 한국사회의 경우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차별출산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주로 1990년 이전에 실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1990년 이후에 수집된 다양한 자료(센서스 자료, 출생신고 자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2003년 전국 출산력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출산수준이 대체로 뒤집어진 J자 형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학원 졸업자 등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직업별로도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사무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으며 직업위세와 출산수준은 부적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의 출산수준은 사무직 종사자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으나 출산시기와 간격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는 출산시기와 간격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둘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여부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정석 2007; 민현주 2007; 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 차승은 2008). 대부분의 연구가 둘째 자녀 출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출산 여부를 고민하거나 출산시기를 연기하는 현상은 첫째 자녀의 출산 때보다 둘째 자녀의 출산시기에 더 뚜렷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다. 김정석(2007)은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지라도 한 명의 자녀까지는 출산하는 현상

이 보편적임을 주장하였다. 반면 둘째 자녀 출산부터는 첫째 자녀의 출산과는 차별적으로 조금 더 계산적이면서 계획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여부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김정석 2007; 민현주 2007; 박수미 2008; 정혜은·진미정 2008; 차승은 2008).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정책대상 집단을 파악하고 제언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로 교육수준, 직업 혹은 취업 관련 요인, 소득이 포함되는데 그 중 여성의 취업상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박수미(2008)는 취업여성들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취업여성들이 선택하는 전략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분담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통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혜은, 진미정(2008) 역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름을 규명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이들의 연구 결과는 취업과 출산을 양립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행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원 및 정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논의들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차승은(2008)의 연구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보상 측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강유진(2007)의 연구 역시 부모역할과 자녀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에 주목하였다.

류기철, 박영화(2009)는 출산계획이 아닌 실제 출산시기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취업상태와 첫 출산시기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출산을 할 확률이 낮고 첫 출산시기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현주(2007)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간격의 관계에 대해서 서구에서 논의되는 가설들을 소개하였다. 즉 일 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간격을 좁힘으로써 자녀 출산시기를 빨리 마감하고 일의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는 반면, 경력 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간격을 가능한 길게 함으로써 총 경력 단절기간이 아니라 단절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경력 지향성 뿐 아니라 출산 후 빨리 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같은 근로조건도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브롤체인(Bhrolchain 1986a; Bhrolchain 1986b)도 소개하였다.

서구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부적인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오래 동안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가령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취업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하여 첫 출산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둘째 자녀 출산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취업여성들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 자녀 출산은 더욱 늦추거나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Brewster & Rindfuss 2000; Cramer 1980; Desai & Waite 1991). 최근에는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만 갖추어진다면 여성의 취업과 출산이 반드시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leeboos 2003).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을 논의함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 관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출산 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혼여

성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이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을 선택하거나 조절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취업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한된 자료의 형태를 이용하여 출산시기와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여성의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취업상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I. 연구자료 및 방법

여성의 취업 여부와 취업상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시기와 간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에는 20-44세 기혼여성 3,802명과 미혼남녀 2,670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¹⁾. 첫 번째 분석대상은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없는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첫 출산시기가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출산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떤 특성을 지닌 여성들이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불임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제외한 결과 총 228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분석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총 322명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

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총 분석대상은 324명으로 제한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잘려진(truncated)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산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얼마나 출산시기와 간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3년 이내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출산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특성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시점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²⁾.

출산시기와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분석대상별로 평균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인 여성들과 평균 미만인 여성들로 이분하였다. 가령 첫 번째 분석대상의 경우는 자녀 없이 지속된 평균 결혼기간이 18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자녀 없이 지속된 평균 결혼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여성들과 18개월 미만인 여성들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 약 20개월을 기준으로 두 번째 분석대상을 이분하였다. 마지막 분석대상은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인 약 41개월을 기준으로 이분하였다.

독립변수로써는 응답자의 연령, 취업상태(비취업,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를 비롯하여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자가 소유 여부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출산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소득, 교육수준, 취업 관련 변수가 포함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을 대체하

1) 첫 번째 분석대상은 자연터울이 3년이라는 기존의 논의(민현주 2007)에 근거하여 결혼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자녀 없이 지내온 평균 결혼기간이 12개월로 나타남으로써 분석대상의 대다수가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2000년 이후부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고려하여 결혼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였다.

2) 출산시기와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출산 당시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자료는 생애사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결혼, 출산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결측치가 많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로써는 조사 시점에 수집된 자료가 이용되었다.

는 변수로 자가 소유 여부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전문대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취업관련 변수로는 여성의 취업상태를 포함하였는데 자영업과 고용주, 상용직은 상용직으로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은 임시 및 일용직으로 분류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특성과 기술 분석결과

Table 1은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응답자들의 64%가량이 20대인 반면,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각각 응답자의 48%와 71%가 3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인 비율이 37%로 가장 높고 최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25%로 가장 낮았다. 취업상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약 42%가 전업주부였으며 40%는 상용직, 18%는 임시 및

일용직으로 관찰되었다. 최근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약 70%가 전업주부, 23%가 상용직, 8%가 임시 및 일용직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역시 약 72%가 전업주부, 15%가 상용직, 13%가 임시 및 일용직으로 관찰되었다. 자가 소유 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37%로 가장 낮았고 최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51%로 가장 높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 앞서 각각의 분석대상 에 대한 기술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따르면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 면서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은 약 18개월 이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여성이 자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이 더 길다. 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없이 지내는 기간은 짧았으며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 없이 지내는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과 상용직 여성은 자녀 없이 지내는 기간이 평균 17-18개월로 유사하였으나, 임시직 및 일용 직의 경우는 약 21개월로 관찰되었다.

Table 1. Percentage of respondents by characteristics (number of respondents)

	Having no child	Having first child within 3 years	Having second child within 3 years
Age			
20s	64.04 (146)	52.01 (167)	28.65 (102)
30s +	35.96 (82)	47.99 (155)	71.35 (25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and less	36.84 (84)	40.25 (129)	53.65 (191)
college graduate	25.88 (59)	26.01 (83)	21.07 (75)
university graduate +	37.28 (85)	33.74 (110)	25.28 (90)
Employment status			
permanent	40.35 (92)	22.60 (72)	14.89 (53)
temporary	17.54 (40)	7.74 (26)	13.20 (47)
no job	42.11 (96)	69.66 (224)	71.91 (256)
Having house			
yes	36.84 (84)	43.65 (140)	51.12 (182)
no	63.16 (144)	56.35 (182)	48.88 (174)
Number of respondents	228	322	345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20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의 차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은 결혼 후 약 1년 정도 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반면, 30대 이상의 여성은 결혼 후 약 20개월이 지난 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비취업이나 상용직 여성들은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까지 약 19-20개월을 소요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약 27.6개월을 소요하였다. 반면 자가 소유 여부와 여성의 교육수준은 첫 번째 집단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학교 중퇴 및 졸업 이하와 전문대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까지 약 20-21개월을 소요하였으나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후 17개월 가량 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약 41개월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다른 집단과 유사하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여성들

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터울을 약 41-42개월로 가지는 반면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약 37개월의 터울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는 비취업이나 임시직 및 일용직에 비하여 상용직 여성들이 터울을 길게 가진다는 점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한 명 출산한 경우와는 다른 경향이 관찰되었다.

2.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앞서 언급한대로 각각의 분석대상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소요기간보다 짧을 확률을 살펴보았다. Table 3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연령은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면 20대는 30대 이상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기간도 평균보다 짧은 편이었고 자녀를 1명, 혹은 2명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기간이 평균보다 짧게 소요되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은 집단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에 비하여 자녀가 없이 지내는 기간이 평균보다 길게 소요되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Table 2. Average duration of marriage (month)

	Having no child	Having first child within 3 years	Having second child within 3 years
Total average	18.3	19.6	40.5
Age			
20s	14.6	13.8	30.2
above 30s	23.1	20.1	41.1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and less	22.5	20.9	41.2
high school	16.1	16.9	37.0
above college	15.6	20.3	42.0
Employment status			
permanent	18.4	20.0	47.4
temporary	21.1	27.6	41.4
no job	17.2	18.7	38.9
Having house			
yes	16.8	18.5	37.1
no	19.1	16.2	36.2

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방향성이 반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하여 자녀가 없이 지낸 시간이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보다 길다. 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하여 터울을 짧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어떤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석대상은 이미 출산을 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도에 출산을 포기하였거나 중단한 사례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터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브롤체인(Bhrolchain 1986a; 1986b)이 영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출산휴가와 같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취업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터울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둘째 자녀를 낳을 의도를 가진 경우 출산 후 복직이 가능한 정규직 여성들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간의 간격을 늘려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불안정한 직종의 여성들은 터울을 단축하여 취업단절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위와 같은 설명이 한국사회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having shorter duration than the average

	Having no child	Having first child within 3 years	Having second child within 3 years
	b	b	b
Age (re: above 30s)			
20s	0.99***	0.87***	1.72***
Educational level (re: above college)			
middle school and less	-0.64*	-0.22	0.07
high school	0.22	0.09	0.26
Employment status (re: no job)			
permanent	-0.47	0.02	0.30
temporary	-0.71*	-0.42	0.72*
Having house (re: no)			
yes	0.05	-0.22	0.35
χ^2	21.04***	16.92***	36.58***
-2LL	283.983	402.121	406.666
N	228	322	345

* p<0.05, ** p<0.01, *** p<0.001

V. 요약 및 결론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낮은 출산 수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높아진 결혼연령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젊은이들의 결혼연령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산시기와 간격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출산시기와 출산간격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심을 보이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많은 부분 자료의 제한점에 기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출산시기와 간격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개인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 여부는 물론 출산시기와 간격을 조절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 역시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이재경 외 2005; 황정미 2005). 또한 여성의 연령별 취업 곡선은 여전히 M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여 완만해졌다는 지적들도 제기된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2; 황정미 2005). 따라서 이 논문은 출산시기와 출산간격은 여성의 가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연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출산시기와 간격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여성들이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출산시기와 간격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하여 자녀를 갖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나,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터울이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은 출산 자체와 첫 출산시기

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많은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들이 둘째 자녀 출산은 포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둘째 자녀를 낳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터울을 짧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불안정성, 출산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의 부족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자체에 대한 고민과 첫 출산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첫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임기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시기와 출산간격을 단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출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 조성,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경향신문(2008) 한국합계출산율 1.2명 세계 꼴찌.
- 김두섭(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류기철·박영화(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 민현주(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터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41(3), 106-126.
-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여성의 생애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

- 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박수미(2008) 둘째 출산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이성용(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전광희(1997)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권태환 외(편) 서울: 일신사. 57-98.
- 전광희(2006)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과정. 인구와 사회 2(1), 1-33.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33, 111-134.
-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99-130.
- Bhrolchain MN(1986a) Women's Paid Work and the Timing of Births: Longitudinal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 43-70.
- Bhrolchain MN(1986b) The interpretation and Role of Work-Associated Accelerated Childbearing in Post-War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 135-154.
- Brewster KL, Rindfuss RR(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 296.
- Cramer JC(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67-190.
- Desai S, Waite LJ(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Sleeboos JE(2003)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Working Paper.